

편집국에서



김기현 편집국장

기해년 한 해가 나흘이면 끝이다. 희망과 기대로 출발했던 제주의 올 한 해는 '충체적 위기'라 하기에 충분하다. 본보가 2020년 슬로건으로 '다시 뛰는 제주, 함께하는 제주'로 정한 이유도 제주 위기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도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자는 절박한 현실 인식 때문이다. 제주의 위기는 분명 급강하하는 실물경제에서 오고 있다. 올해들어 감귤 마늘 광어 등 각종 농수산물 가격하락의 광풍은 언제까지 휘몰아칠지 예측하기 어렵고, 건설·부동산경기 침체에다 소비침체로 인한

아듀! 2019, 참 우울한 송구영신

관련업계의 비명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라 불리는 감귤 가격의 하락세는 충격적이다. 12월들어 도매시장 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61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40원)에 비해 24% 하락했고, 2017년 12월(8772원)과는 무려 30%나 떨어졌다. 언제 상승세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우울한 겨울일 수밖에 없다. 최대 일반작물인 마늘 역시 충격적 가격 하락세다. 2019년산 가격 하락에다 처리난을 겪은데 이어 2020년산은 더 큰 폭의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농협의 계약단가가 kg당 2500원으로 농가 요구 계약단가가 3200원보다 크게 낮아졌는가 하면 계약물량도 농가생산 예상량에 한참을 밑도는 수준에서만 받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도 거래 침체, 미분양 속출, 집값 하락세로 어렵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0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한 제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11월)은 전년 0.82%에서 올해 -2.30%로 반전, 본격 하락세를 맞았다는 평가다. 특히 제주미분양 주택이 현재 1000호를 넘는 것으로 파악돼 인공입 등화에 따른 수요 위축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시장 악화가 지속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제주관광은 어떤가. 중국 사드국면 장기화 여파로 제주관광이 보타리상인 파이공 중심으로 왜곡됐는가 하면 올해 '노 재팬' 영향으로 일본시장마저 주춤하고, 주 대상인 내국인 관광객의 회복 또한 더디게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제의 위기는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8년 지역소득'을 보면 2018년 제주의 실질 GRDP는 18조8221억원으로 전년(19조1447억원) 대비 1.7% 감소했다. 제주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경북과 함께 유일하게 마

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제주 GR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2017년의 경우 4.9%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이다. 내년 이때쯤 내놓을 '2019년 지역소득'에 반전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기에서 지역사회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찬·반 갈등이 접점은 커녕 날로 확산되면서 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사실 제주의 위기 원인은 국내의 경제상황에도 맞닿아 있지만 제주 구성원 모두가 시대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과 사후 대처 부족 등도 큰 몫을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산자인 농민의 자구노력, 농업협동조합의 혁신, 행정의 의지 등 '삼박자'가 치열하게 맞붙어야 한다. "제주사회가 농가·상인·청년·서민에 대한 정책이 없다면 공멸할 수 있다"는 김태석 도의회의장의 외침이 어느때보다 크게 들리는 세말이다.

사설

감귤대란 예견에도 대응 메뉴얼 없는 행정

올해산 감귤 수급 안정과 가격회복을 위해 민관이 나서고 있으나 갈수록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뒤늦게 상품과 시장격리에 이어 가공용 감귤 자가 농장 수매와 소비촉진 등 총력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달들어 도매시장 감귤 평균 경락가격(5kg 기준)은 61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40원)에 비해 24% 하락했습니다. 2017년 12월(9772원)에 비해서는 30%나 폭락했습니다. 감귤가격이 좀처럼 예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올해 감귤대란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대처는 아쉬움이 큼니다. 가을 태풍이 연달아 내습하고 비닐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품질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행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는 가이드라인 설정 등 대비책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

다. 가격 하락이 지속되자 부랴부랴 상품과 격리 등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급조된 땀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행정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감귤산업은 이제 양이 아니라 맛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뜬금없이 들리는 것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귤산업의 질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뒤늦은 상황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제야 말이 아니라 세밀한 실천전략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귤상황실 설치 등 신속하면서도 단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뉴얼을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가격하락과 소비부진에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겨울철 화재 빈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10년새 평균 2건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대형 화재가 많이 접해서 그런지 제주에서 그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재가 빈발하는 계절이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잇따라 발간한 소방안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8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8건씩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10년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55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39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지역은 인구 대비 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의 경우 인구 대비 화재발생 비율은 1만명당 10.51건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8.27건)보다 2.24건이 많습니다. 제주를 강원(14.68건), 전남(14.65건), 충남(12.36건), 전북(11.15건)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모든 사고가 예고없이 막치듯이 화재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습니다. 특히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택입니다.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화재가 4건 중 1건이 넘는 정도로 많습니다. 가족이 편히 보내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용품의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전기장판과 히터 등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만큼 화재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따라서 화재는 철저한 예방을 통해 미리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린마당

'기해년을 보내며'



양윤경 서귀포시장

기해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삶의 일터에서, 행정의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고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역경제 회생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몇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감귤 문제에 너무 안타깝고 아픈 심정입니다. 감귤이 무너지면 서귀포 서민경제도 무너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서귀포시정은 무엇보다 시민을 시정의 주인으로 세우고자 최

선을 다했습니다. 105개 마을 중 90개 마을 방문과 기관·사회단체와의 소통으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 국가균형위원에서 공모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앞으로 3년간 1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추진에도 힘을 모았고, 서귀포시가 최종 선정돼 문화·역사·관광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생활쓰레기와 교통 분야의 시책들은 중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통해 638억원의 예산 인센티브를 확보해 내고, 공직자 청렴 1등급 실현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고 밑줄을 놓았을 뿐입니다. 하나하나 실천하며 하나씩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뉴스-in

“女축구 최종예선 차질없이 추진”

도, 북한 참가 포기 대략난감 ○...내년 제주에서 열린 예정이던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남북대결이 북한측의 참가 포기로 '특수'를 기대했던 제주도는 대략난감. 제주도는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 북한과 함께 A조에 편성됐는데, 최근 북한의 불참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3개국의 경쟁구도로 치러진다고 26일 발표. 도 관계자는 “남북 스포츠 교류의 물꼬를 틀 남북대결이 취소돼 안타깝지만 유관기관·단체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조상윤기자

시민소통정책자문단 성과

○...서귀포 시민소통정책자문단(위원장 김영보)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 눈길. 올해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의 주요 정책 반영 사례로는 폐농약 안

심처리 수거 시스템 시행,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대상 확대,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과정 신설 등 다양.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 이태윤기자

한라팔공회 사랑의 김치 전달

○...도내 16개 고등학교 동기생들로 구성된 '한라팔공회'가 9년째 사랑의 김치 전달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눈길. 한라팔공회는 최근 한림체육관 야외에서 회원 부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00포기의 김장을 담그고 기초생활수급가정과 독거노인 및 한라팔공회와 결연한 복지시설 등에 전달. 부창군 한라팔공회 회장은 “매년 읍면동 1개 지역의 독거노인가정, 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벌써 10회가 된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부고 許忠濠(前 경찰공무원) 어머니 金海金氏 秋月(향년 101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26일 12시 1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장 지: 대정읍 동일리 2017-5번지

부고 제주영락교회 김종식 원로장로(전송재단 이사장)의 부인 이경애 은퇴권사(향년 80세)께서 2019년 12월 26일 06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 장 지: 제주영락동산

부고 김문택(前 KT근무) 어머니 제주 고씨 인성(향년 94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25일 12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장 지: 양지공원

토지주(후손)를 찾습니다 성명 : 강두현 주소(본적) : 화북읍동 4207 ... 문의 : 오세형 010-5531-553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원 SCL A급 등록 ... 한기림 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